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권회의 결정에 따라 핵무기연구소에서는 주제107(2018)년 5월 24일 핵시험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핵시험장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강도들을 폭발적으로 분락시키고 강도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사성물질추출현상이 전

혀 없었고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다는것이 확인되었다.

지상의 모든 관측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데 따라 핵시험장주변을 완전폐쇄하게 된다.

핵시험장의 2개 강도들이 임의의 시각에 위력 큰 지하핵시험들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리용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이 국내외자들과 국제기

단 성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핵시험장 폐기를 통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공화국정부의 주동적이며 평화호적인 노력이 다시한번 명백히 확증되었다.

핵시험중지는 세계적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 인류의 꿈과 리상이 실현된 자주화된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것이다.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

【평양 5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권회의 결정에 따라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이 완전히 폐기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해당 기관들에서는 핵시험장을 폐기할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4월전권회의 결정이 발표된 후 핵시험과 관련한 모든 준비와 공사들을 즉시 중지하고 단계별로 폐기작

업을 진행하여왔다.

핵시험장의 강도들과 관측소, 지휘소, 연구소들에 전개되어있던 각종 설비들과 정보통신 및 동력계통들, 건설 및 운영장비들이 해체철거되었다.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이 24일에 진행되었다.

핵시험장폐기상황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남조선의 기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취재촬영하였다.

순차적으로 투명성있게 진행되었다.

작업이 완료된 다음 현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이 발표되었다.

핵시험장의 폐기는 핵시험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평화애호적립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북남관계에 질하는 자세부터 바로가져야 한다

북과 남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렸음을 엄숙히 천명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갈때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역사적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의 주요전략대상들에 대한 정밀타격과 제공권장악을 노린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지금까지 공화국이 보여준 평화애호적인 모든 노

력과 선의에 무례무도한 도발로 대답해나섰다. 뿐만아니라 인간쓰레기들의 대결망동을 목인하였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바라는은 겨레와 국제사회에 커다란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16일로 예견되었던 북남고위급회담도 진행될수 없게 만들었다.

남조선당국의 이 모든 대결소동들은 지난 시기 적대와 분렬을 본연으로 삼던 보수 《정권》의 속성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북남대화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전쟁

연습소동이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인간쓰레기들의 대결망동을 목인하는것도 대화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으로도 용납될수 없는 동족대결망동이 아닐수 없다.

선의를 베푸는데도 정도가 있고 기회를 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만인이 지치않도록하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리행될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써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수 있다.

실행이 지연되고 무례무도한 사람들과 마주앉아서

진정성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내성공민들에 대한 보수세력의 집단유인람치범죄의 진상이 그대로 드러나 내외의 규탄여론이 비발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공화국은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대담을 통하여 그들을 지체없이 송환하지 않으면 북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해결에 심중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에 거부적인 태도를 취하며 심히 오만불손하게 처신하고있다.

남조선통일부 장관 조명균은 언론을 통해 이 사건건의 모략적정체가 날날이 폭로된 후에도 《국회》의 교동일위원회에서 《그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곳에 와서 정착해 생활하고있다》, 《송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있다》고 강변하였는가 하면 공화국의 송환요구에 대해서도 《기존립장과 다름없다》고 뻔대면서 《남북이 합의한 리산가족상봉행사에 영향이 없기를 기대한다》는 과격치한 언사를 늘어놓았다.

청와대관계자도 《지금까지 견지해온 립장에서 변화된것이 없다》고 하면서 강제로 집단유인람치된 공화국내성공민들에 대한 송환기부의사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박근혜당파의 반인륜적인 강제집단유인람치범죄가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에 와서까지 그들의 송환을 거부해나서는 현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범죄를 저지른 보수적패당과 조금도 다름없으며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데 대해 의

문시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북남관계를 주관한다고 하는 청와대와 통일부가 특대형반인륜범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며 《자유의사에 따른것》, 《송환은 검토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는 등 보수세력들과 한목소리를 내고있는것은 만인의 격분을 자아내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법한 아량과 성의있는 조치에 진정성있는 자세로 화답해나설 대신 미국과 공중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국회》마당에 금수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를 내세우는가 하면 박근혜당파의 반인륜적범죄까지 목인하러들며 뻔뻔스럽게 늘어고있다.

이것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에 역행하는 엄중한 범죄이고 적폐청산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층 민심에 대한



남조선에서 5.18광주인민봉기가 일어났던 때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 광주대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가 미국이었다는 사실자료를 새로 공개되어 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당시 전두환역도의 시위진압작전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과 미군사령관이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해준 사실이 담긴 미국무부의 비밀문건이 이번에 공개되었다. 비밀문건을 분석해보면 광주항쟁의 진행상황과 공수부대의 잔인한 학살만행 등에 대해 미국은 모든것을 다 알고있었다. 실지로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광주시를 장악한 후 방송기자회견에서 광주진압작전은 미국이 승인한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비밀문건에는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이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강한 성명을 발표할것이라고 전두환을 압박했던 사실도 담겨

있다.

지금껏 미국은 광주항쟁과 자신들은 무관하다며 지방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니 잘 몰랐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이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광주대학살만행의 배후조종자로서의 미국의 정

지난 1988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위해 《광주특위》가 조직될 때 남조선 《국방부》는 511연구위원회라는 비밀조직을 내왔다. 이 조직이 광주대학살만행에 투입되었던 군인들에 대한 사찰과 입막음 등

역사의 진실은 가리울수 없다

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짐승도 낯을 붉힐 류철참극을 조작하고도 아무런 사죄와 반성은 없이 그 진실을 덮어버리려 한 후안무치한 미국이 아닐수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광주대학살만행을 저지른 전두환과 그 잔당들, 그 바통을 이어 받은 보수세력들이 갖은 권모술수로 민심을 기만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발악한 그것이다.

광주의 비밀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것이 밝혀졌다. 1995년 특별수사사태에는 현직검사들을 사찰하고 동향을 파악했다. 이는 문건도 확인되었다. 광주에서 그토록 잔혹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쿠우보수세력들은 저들의 죄과를 덮어버리기 위해 광주의 항쟁시위대를 《북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로 몰아붙여왔다. 결국 38년간이나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당파들을 포함한 친미우익보수세력들에 의해 민심이 기만당해왔

지금 광주인민봉기 38돐을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대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남조선당국과 정계, 사회계에 이 광범히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당국자가 《5.18에제지》를 통해 광주가 겪은 상처를 아직까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공조사단을 꾸려인권유린실태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국무총리》도 기념사에서 9월부터 5.18민주화운동

매국협정폐기를 위한 굳센 의지

— 남조선단체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요구 —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와 더불어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보장에 대한 민심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때 대한 각계층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50여개의 진보단체들을 망라한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전범국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남북협상이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것만큼 일본과의 군사협력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국이 일본군주주의부활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불러오는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대표적

한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러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조직 전개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를 위한 투쟁에 적극 협력치나선것은 일본의 채침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박근혜적패당과 아베일당의 범죄적공조결탁의 산물로서 동족사이 불신과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군주주의부활과 조선반도제정의 발판을 마련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다.

박근혜역도는 집권후 민심을 외면하고 그 무순 《미패지향적인 관계》와 《돈독한 신뢰구축》이라는 개나발들을 불어대면서 일본군성노에 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치렬리는 과거죄악들을 목인해주었을뿐아니라 나중에는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일본과의 반공화국암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할 심산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서슴없이 체결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야말로 《대표적

인 외교안보적폐》라고 하면서 그의 폐기를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확약한 오늘 이러한 매국협정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은 민족의 수치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아시아인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조성된 북남화해와 긴장완화국면에서 《북의 위협》을 구실로 맺은 매국협정이 존재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금 은 겨레는 남조선당국이 판문점선언의 리행과 적폐청산에 대해 말로만 떠들것기 아니라 보수세력들이 천년속적과 맺은 매국협정을 폐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협정폐기를 집권공약으로 내세웠던 남조선의 현 당국은 판문점선언이 립행한 새로운 정세와 환경에 맞게 박근혜당파의 적폐인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본기자 주광일

《판문점선언 역행하는 <맥스 썬더> 훈련 즉각 중단하라 !》

— 남조선의 정당, 단체들 북침전쟁연습중지를 요구 —

지난 16일 서울의 미국대사관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 썬더》훈련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이 단체들은 《(한) 미당국은 판문점선언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지난 11일부터 최신에스텔스전투기 (F-22 램퍼)를 사상 최대규모로 동원하는 《(한) 미련합공중전투훈련 (맥스 썬더)》를 강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대화상대를 자국할 군사훈련을 할 때가 아니라 지속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15일에는 민중당 성원들이 광주공공기지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선반도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침략전쟁연습, 《맥스 썬더》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미국남조선연합공중전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었다.

회견문은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이 북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라고

하면서 이 훈련을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하는 미국과 당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까맣았다.

회견문은 조선반도평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해도 모자랄 판국에 미국전투기들이 조선반도에 들어오는것은 앞에서는 대화를 언급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갈고있는 미국의 속심을 보여준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그동안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얻은것은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회견문은 단

